

“생각하라, 소프트웨어로 표현하라”



전남교육청이 22일 순천금당중 학교에서 2019. SW창의융합 동아리 해커톤 멘토링 중간 캠프를 개최했다.

순천금당중, 연향중학교, 고흥중, 청암고 등 4개 학교에서 학생 20여 명과 지도 교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태고 박호림, 목포마리아회고 주현용, 순천금당중 양석재 교사가 멘토를 맡아 캠프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구현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해커톤의 성격을 지닌 중간캠프로, 2015. 개정교육과정 SW교육의 정착과 더불어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SW역량 강화 및 디자인 싱킹을 활용한

문제해결력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경진대회와 달리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이질적인 모둠을 구성하고 함께 팀을 이뤄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공유했다.

참가 학생들은 다시 소속 학교로 돌아가 오는 10월 11일~12일 여수 엑스포에서 개최되는 2019. 제4회 전남 소프트웨어 페스티벌 SW창의 융합 도전프로젝트 경연 본선에 참가할 준비를 하게 된다.

본선에서는 본인이 생각한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실제 피지컬 교구나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등을

전남교육청, SW 창의융합 동아리 멘토링 캠프 운영 모듬활동 통해 새로운 주제 선정 문제해결 과정 공유

활용해 구현하고 시뮬레이션 하게 된다.

중간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팀 빌딩 활동, 문제 상황의 설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서 수립, 마인드 맵 작성, 알고리즘 표현 등 SW기반 해커톤의 기본 과정을 체험했다. 중간 단계에서 멘토교사의 피드백을 받은 후,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정교화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발표 프리젠테이션을 했다.

특히 올해 해커톤 대회는 전남 SW관련 대회 중 신설된 분야로 단순히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스킬을 배우는 것이 아닌 일상 생활의 실제 문제해결능력 및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올러 해커톤 과정에서 추상화, 자료수집, 자료 표현, 알고리즘 제작 등의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다.

이번 중간 캠프에서는 자동으로 세제량을 측정해주는 세탁기,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스마트 시동 시스템, 보행자 무무에 따라 신호등 신

호를 변경하는 스마트 신호등 등 특 록 튀는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캠프 진행을 위해 장소와 인적, 물적 지원을 지원한 권순용 순천금당중학교장은 "SW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진인적 능력의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과목이다"며 "앞으로도 SW교육을 이끄는 리더학교가 돼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나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10층)은 "단순히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이 아닌 내가 한 기업의 오피서로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변하게 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미래인재과 이현희 과장은 "전남 교육청은 학생활동 중심의 SW교육을 실천하며,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생각한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미래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기르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나이팅(Teen)게일 캠프 '성료'

살레시오여고 '꿈꾸는 나이팅게일' 동아리, 보건·간호인 체형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학생 동아리 '꿈꾸는 나이팅게일' 부원 17명이 6월22일 토요일 살레시오 작은도서관 '마인'에서 2019 '나이팅게일' 캠프를 열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간호·의료계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동아리 학생들은 2017년부터 학생 주도형 진로캠프를 통해 진로 정보와 간호기술들을 같은 꿈을 걷는 학생들과 나누고 있다.

이날 진로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의 꿈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특수교육 및 유치원교사, 스튜어디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사람을 대상으로 돌봄을 실천하는 분야라는 공통점이 있어 캠프를 통해 돌봄의 가치를 배우고,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며 "자신감을 얻었다"는 반응들을 보였다.

체험내용은 간호 인물과 간호 관련 도서 소개, 일상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활력징후 측정법, 드레싱과 붕대법, 폐활량 측정 및

흡연예방 교육, 스트레스 측정 및 아로마테라피 체험, 다름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배울 수 있는 장애 공감 체험(이동장애·시각장애·조현병 증상) 등이다.

올해는 교육청 멘토링 사업 지원을 받아 중앙대 간호학과 장신주 교수를 초빙해 전문간호사 및 간호관리자, 교육학자로서의 경험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장 교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을 묻는 질문에 '인성(人性)'을 꼽으며, "진실성과 책임감을 기르고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캠프에 참가한 나현민 학생은 "작년에 이어 2번째 참가로 다양한 체험 안에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어 흥미로웠다"며 "무엇보다 나의 신체적 한계로 꿈을 이룰 수 없을 거란 불안이 있었는데 교수님의 진솔한 대답에 용기를 얻고 매일의 삶을 충실히 살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생각을 밝혔다.

조인호 기자

'부모님과 함께하는 달빛독서캠프' 운영

함평학다리고



함평학다리고등학교(교장 김갑수)는 독서를 통한 학부모-자녀간의 소통 강화하기 위해 지난 21일 학교도서관과 연수실에서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모님과 함께하는 달빛독서캠프'를 운영하였다.

이번 행사는 독서에 대한 관심을 북돋우고 도서관을 독서의 공간이자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작가강연회, 책갈피 만들기, 책 읽고 서로 이야기 나누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이 날 진행된 캠프에서 참가자들은 책읽기와 다양한 독후활동을 통해 서로에 대한 벽을 허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를 더해가며 소통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고등학생이 되어 바빠진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여의치 않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자녀와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마련해주신 학교 측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는 소감을 발표하였다.

김재희 학생(1년)은 "엄마와 함께 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고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다. 또한 독서캠프에서는 단순히 책을 읽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활동을 통해 책을 이해하고, 작가를 이해하고 서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생각을 더욱 넓고 깊게 확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함평학다리고 김갑수 교장은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이 아닌 문화공간이자 소통과 추억의 공간임을 강조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행사 및 활동을 통해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화순교육지원청, '해설이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식)은 교육공동체의 심미적 감성역량 함양과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해설이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6월 19일 동면초등학교를 시작으로 6월 20일에는 도곡초등학교 '사?재?부 행복동행 1박 2일 감성캠프' 행사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170여명에게 공연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해설이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는 화순교육지원청에서 구성된 4개의 연주단(이른음악상블, 국악양상

블, 피아노, 피아노와 첼로 듀엣) 중 학교에서 희망한 연주단이 원하는 시간에 학교로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친숙하면서도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인다.

이번에 열린 동면초와 도곡초 공연에서는 플루트 바이올린, 첼로 타악기로 구성된 이른음악상블이 클래식, 뮤지컬 및 애니메이션 주제곡 등 학생들에게 친숙한 곡을 연주했으며 코디이 손기호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며 손기호를 익힐 수 있도록 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교권보호 특강

나은정 변호사·유리향 교사, 학생학부모 상담법·법률 강의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이 21일과 22일 양일간 유·초·중·고등학교 저경력교사와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 광주교육지원센터 힐링미루에서 교권보호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올해로 2년차를 맞는 이번 연수는 경험이 부족한 교사들이 흔히 겪게 되는 학생·학부모와 소통 과정 오해로 인한 교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실제적인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동초등학교 유리향 교사는 학생·학부모 상담법 연수를, 동부교

육지원청 나은정 변호사는 교권보호 특강을 진행하는 등 모든 과정이 실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광주동서부교육청 오주봉 민주시민교육지원과장은 "자칫 소외될 수 있는 학교 현장의 저경력, 기간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역량 강화연수를 기획했다"고 연수 개설 취지를 설명하며 "앞으로도 광주교육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의 교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